

박카스, 드링크 시장 1위 지켰다!

3/4분기 매출 995억원으로 비타500 따돌려 ... 상반기도 630억원

동아제약의 박카스가 2005년 들어 광동제약 비타500의 과장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드링크 시장 수성에 성공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드링크 시장의 3/4분기 매출에서 박카스가 995억원으로 951억원을 올린 비타500을 44억 원 차이로 앞섰다.

박카스는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되는 음료인 비타500보다 영업망에서 불리한 여건이지만 45년 역사의 관록을 앞세워 시장을 추격을 뿌리친 것으로 평가된다.

상반기 판매도 박카스가 630억원으로 비타500의 586억원에 비해 44억 원 많았다.

광동제약은 4월 한달간 비타500의 매출이 박카스를 앞서면서 2005년 전체 매출에서 박카스를 앞설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드링크 시장 1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특히, 4/4분기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단순 음료보다는 의약품이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005년 매출도 비타500이 박카스를 제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9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타민 음료의 방부제(안식향산나트륨) 함유 논란이 결과적으로 비타500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16>